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2월 4일(금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월미공원 사 업 소	담 당 자 • 공원운영팀장 박순원 ☎440-5911 • 담당자 강현명 ☎440-5917		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봄의 시작과 함께 복을 기원 하세요

- 인천시, 전통한옥 양진당에 2022년 입춘방 붙이기 진행 -

인천광역시는 4일,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전통한옥인 양진당 대문에 입춘방 붙이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.

예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이 되면 복을 기원하는 글을 써 대문이나 기둥, 천장에 붙였는데 이것을 ‘입춘방(立春榜)’ 이라고 한다.

입춘방은 대개 ‘입춘대길, 건양다경(立春大吉, 建陽多慶)’ 을 쓰며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.

입춘방이 붙은 양진당은 월미공원 한국전통정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, 한국전통정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정원양식을 재현해 월미공원 내에 조성된 곳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고, 다양한 전통체험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.

김천기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“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봄이 찾아오는 월미공원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<붙임> 월미공원 전통정원 양진당에 입춘방 붙이기 진행 사진



